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걸돌고 있다

대상 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만 신청
주치의 교육 이수 577명 중 실제 활동 고작 87명 불과
“정부, 의료·장애인단체와 개선방안 마련해야”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걸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 이처럼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의사에게는 투

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등록 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등이다. 이어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도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국가인권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긴급구제 결정’
“지원줄어 질식사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14일 인권위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긴급구제란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뒤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진정인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장애인 종합조사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대폭 줄게 되면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진정인 3명도 지난 9월부터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최대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로 축소됐다. 이들은 “식사지원과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생겨 삶이 어려워졌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활동보조인이 없어진다면 혼자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인권위는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성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보성행복지킴이단 추가 모집

보성군은 오는 22일까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보성행복지킴이단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검침원, 택배업, 이미용, 약국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서 이웃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빈틈없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위기가구는 행복지킴이단과의 1:1결연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보성행복지킴이단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무보수 명예직으로 희망드림협의회, 복지이장, 주민 등 700여명이 지난해 1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발견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제로 연계하고 동행방문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강진군, 장애인 생활체육 론볼 무료교실 운영

체육지도자 재능기부로 함께하는 체육활성화



강진군은 지난 10일 장애인의 체력 증진 및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인 ‘생활체육 론볼 무료교실’을 개설하였다. 론볼 교실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진군종합운동장 풋살장에 모여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강의는 장애인체육지도자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로 운영되며, 기본자세 훈

련, 경기방법, 도구 사용법, 그룹대항 등 론볼의 기본적인 자세부터 세부적인 경기방법을 배우게 된다. 신설된 론볼 교실은 강진군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기초체력의 향상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진군은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남 영암군 일원에서 치러진 ‘2019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강진군 대표선수 8명이 출전하여 ‘론볼 남자 4인조’ 부분 2위에 입상을 한 바 있다. 이에 전문 장애인 체육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도 가능성을 보여 2019년도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12명 이상의 대표선수 발굴을 목표로 전문성을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산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생활체육에 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이 소외받아 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그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강진군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